

2. 학업

2.1 일반강의

버클리에서는 대부분 강의제목보다는 강의코드로 말하는데, 예를 들어 CHMENG 90이라면 화공과의 90번 강의라는 뜻입니다. 보통 100 미만의 강의는 lower division(1-2학년), 200미만의 강의는 upper division(3-4학년), 200 이상의 강의는 대학원 강의로 분류됩니다. 또 100, 101 강의는 전과에 필요한 개론 느낌의 수업으로 백센 편이고 앞에 C가 붙어 있다면 컴퓨팅을 요구하는 강의라는 뜻입니다. 전 화공과로 아래의 수업들을 수강하였습니다.

CHMENG 90, DESINV 95, COMPSCI C191, CHMENG 143, CIVENG C88, BIOENG 25

2.2 DeCal (<https://decal.berkeley.edu/>)

또 정식 수강신청 외에도 DeCal이라는 학생 주도의 수업도 있는데, 보통 개강 이후에 수강신청을 하고 특이한 수업이 많습니다. 학술적인 것부터 해리포터나 포커 decal 등 다양하게 있지만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고 휴강도 꽤 많아요. 전 Idea to IPO를 수강하였는데 경영대 주관 수업이었으나 공대 학생들만 가득했던.. 수업이었습니다.

2.3 학습 방법

전 시험을 보는 수업이 거의 없고 프로젝트와 과제를 위주로 평가되는 수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매주 제출하는 과제들이 좀 귀찮긴 해도 복습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기말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. 공대 위주의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과제나 프로젝트들이 버겁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인문대 수업을 수강했던 같은 과의 친구가 매주 읽어가야 하는 리딩과제의 양이 엄청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긴 했습니다.. 또 교수님 Office Hour(OH)를 잘 활용하면 교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어서 수업 때보다 더 깊이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. 친분도 쌓을 수 있고요

2.4 인턴 (<https://career.berkeley.edu/find-opportunities/experiential-learning/campus-opportunities/>)

버클리에는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학기 중에 교수님께 컨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과대 내의 프로그램도 있고, 학교 내에서 준비된 프로그램도 있으니 출국 전에 한번 찾아보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전 학기 중에 URAP(Undergraduate Research Apprenticeship Program)으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진행했지만 교수님의 랩에서 하는 인턴십 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.

2.5 장기 체류

봄학기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여름방학이 3개월 정도로 길게 있기 때문에 비자 서류의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. J1 비자라면 AT(Academic Training)로 DS-2019 서류 연장을, F1 비자라면 OPT나 CPT로 I-20 서류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고용되거나 고용될 상태여야 가능합니다. 보다 길게 있으면서 인턴 활동도 해보고, 여행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어 기회가 된다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

3. 생활

3.1 입국 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

• 의복

봄학기 버클리는 춥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올때 아우터와 우산을 챙겨오는 것이 좋고, 8월까지도 크게 덥지 않은 날씨(평균적으로 최고온도 24도, 최저온도 15도)입니다. 하지만 9월에는 한국의 여름처럼 더운데 에어컨도 잘 없어서 얇은 옷을 많이 챙겨오는 것이 좋아요. 전 개인적으로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옷과 신발을 많이 챙겨갔고, 다양하게 입으면서 만족했습니다.

• 화장품

한국에서 필요한 화장품들을 여유있게 구매해서 갔었고,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화장품을 추가로 사지는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 토너가 가격과 퀄리티 모두 괜찮다고 하니 무거운 토너 정도는 와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

• 고데기 및 난방용품

변압기로 고데기는 작동이 되지만 드라이기는 되지 않으니 드라이기는 와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전기요를 챙겨와서 겨울을 버티는 친구도 있었으나 변압기로 작동이 안돼서 승압기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하고 챙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.

• 물가

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들은 한국보다 조금 싸거나 비슷한 정도였고 외식 물가는 더 비싼 느낌이었습니다. 보통 한끼에 \$15 ~ \$25 정도인데 여기에 세금과 팁을 포함하면 조금 더 비싸지죠.. 팁은 식당에서 18~20% 정도로 지불했고 카페나 테이크아웃은 팁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.

3.2 식사 및 편의시설(의료, 은행, 교통, 통신 등)

• 의료

전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었지만, 친구들 말로는 예약도 어렵고 가기도 힘든데 보험 적용하는 것도 귀찮다고 합니다. 특히 보험이 학교 보험(Ship)이 아닌 외부 보험일 때는 학교의 의료센터(Tang)에 가기 어렵다고 하니 꼭 전화해보거나 메일을 보내보고 방문하세요. 간단한 해열진통제, 소화제 등은 Target이나 Walgreens 등의 마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

- 은행

은행은 곳곳에 있는데, 사실 갈 일은 가장 처음에 계좌를 개설할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. 주로 BoA(Bank of America)나 Chase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, 전 디즈니 카드에 홀려서 Chase에서 디즈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. 보통 학교 계좌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서류들을 잘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세요.

- 교통

학교 근처에 있다면 버스를 타는 일이 많을텐데 버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clipper 카드로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고 오클랜드나 에머리빌, 샌프란시스코 등을 다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버스는 구글 맵으로 볼 때 항상 지연되기 때문에 아침에 급하게 등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 지하철 바트(BART)는 clipper 카드에 충전해서 돈을 내고 타야 하는데 산호세 등 보다 멀리 가는데 좋아요. 버클리는 근처에 공항도 많고(샌프란시스코, 오클랜드, 산호세 공항) 바트 역도 많으며 버스도 많아 미국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 중 하나입니다.

- 통신

통신은 한국 번호는 그대로 두고 esim을 깔아서 사용했고, 한국 번호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 인증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esim은 저렴한 mint를 사용했는데 산 근처 캠퍼스(college of chemistry)에서 가끔 전파가 터지지 않는 것만 빼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.

- 식사

전 off campus여서 요리를 해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Weee 어플로 한식을 많이 시켜먹었습니다. 이 외에도 캠퍼스 남쪽과 다운타운, 그리고 ELMWOOD 거리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Imm Thai, Jupiter, Great China, Sizzling Lunch, U :Dessert Story, Almare Gelato Italiano, Crixia Cakes 등등 추천드려요.

3.3 여가 생활

- 샌프란시스코

대표적인 현대미술관 MOMA가 있습니다. 크루즈, 페리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근처 바다를 다닐 수 있는데 특히 선셋 크루즈를 추천드립니다. 페리로는 알카트라즈 섬, 소살리토 등을 갈 수 있고 clipper로 결제하면 할인이 들어가 보다 저렴하게 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pier 39나 twin peaks 야경, palace of fine arts, potrero hill, dolores park, barker beach 등등 명소가 많은 곳입니다.

- 캠퍼스 근처

동쪽에 Greek Theatre에 매주 콘서트가 열리는데 잘 확인해보면 우리도 아는 유명인이 오기도 합니다. BAMPFA는 데이트하기 좋은 이쁜 전시들이 많고, Botanical Garden은 hill 위에 있는 데이트하기 좋은 공원으로 둘 다 학생증 있으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Rose Garden은 5월에 장미들을 구경할 수 있는 예쁜 정원이고, 캠퍼스 내의 Hass Pavilion에서 농구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

- 쇼핑

샌프란시스코 union square 근처는 쇼핑하기 좋지 않았고, 개인적으로 산호세의 Great Mall, livermore의 San Francisco Premium Outlet이 좋았습니다.

- 운동

운동하려면 캠퍼스 내의 RSF에서 헬스나 시간별 코어운동 등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잘 안 가게 되었고 서쪽에 Berkeley YMCA나 Equinox Berkeley 등을 끊어서 헬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
3.4 여행

- 시애틀 밴쿠버 록키산맥

봄방학 때 시애틀과 밴쿠버의 록키산맥을 다녀왔습니다. 시애틀은 city pass를 끊어서 주요 관광지들과 크루즈를 탔었고 근처의 워싱턴 대학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. 록키산맥의 경우에는 투어를 끼고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여름에 갔다면 연못들이 더 예뻐했을 것 같습니다.

- 샌디에고 LA 조슈아트리

종강 이후 샌디에고와 LA를 다녀왔습니다. 샌디에고에서 록 콘서트를 갔었고, LA에서는 주요 관광지들을 돌았는데 그중에서 조슈아트리 공원 투어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. 사진찍어주시는 분이 절묘한 순간들을 잘 잡아서 찍어주시니 사진 잘 나오는 옷을 입고 한번쯤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- Lake Tahoe

버클리 북쪽에 위치한 큰 호수인데,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1박 정도 잡고 주말에 다녀오면 좋아요.

- napa valley

버클리 북쪽에 있는 와인너리인데 만 21살 음주제한에 걸려서 출국 직전에야 잠깐 다녀올 수 있던 곳입니다. 와인이나 술 좋아하시면 한번쯤 가 볼만한 장소인 것 같아요

- 등등

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, 멕시코의 칸쿤, 뉴욕과 보스턴, 마이애미와 올랜도, 퀘벡, 그리고 하와이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한국에서 갈 때보다 적은 항공료로 여러 여행지들을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

4. 소감

힘든 일도, 즐거운 일도 많은 교환학생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,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정말 뜻깊고 유익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학업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보다 수평적인 교수-학생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수업 방식과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 또한, 다른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성과 책임감을 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와 같은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제협력본부와 공대의 교무행정실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